

보도시점 2023. 8. 30.(수) 10:00
(2023. 8. 30.(수) 석간)

배포 2023. 8. 29.(화) 14:00

국립전파연구원, 차세대 ITU-R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제표준화에 대응한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(원장 서성일, 이하 전파연)은 전파 관련 국제기구 업무에 관심이 있고, 영어 등 기초 역량을 보유한 신진 전문가 풀(가칭 ‘글로벌 CREW*’)를 구성하고 국제협력 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본격화하는 발대식 행사를 8월 30일 전파연 빛가람전파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글로벌 CREW : 국제표준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전파연내 ITU 국제기구 업무에 관심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구성한 인력풀

동 행사에는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새롭게 구성된 글로벌 CREW와 관련전문가도 참석하며,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선배 전문가들도 같이 초청하여 노하우 전수 등 주요 국제회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.

전파연은 과기정통부내 전파 분야 국가 전문 연구기관으로써 ITU(국제전기통신연합) 대응을 위한 “한국ITU연구위원회”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, ITU-R(전파통신 분야)은 주파수 관련 국가간 혼신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야로, 현재 전파연에서는 ITU-R 국제의장단에 2명의 부의장을 진출시켜 ITU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입지를 다져오고 있다.

전파연은 이러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글로벌 CREW 양성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분야와 관계없이 희망자를 조사·선정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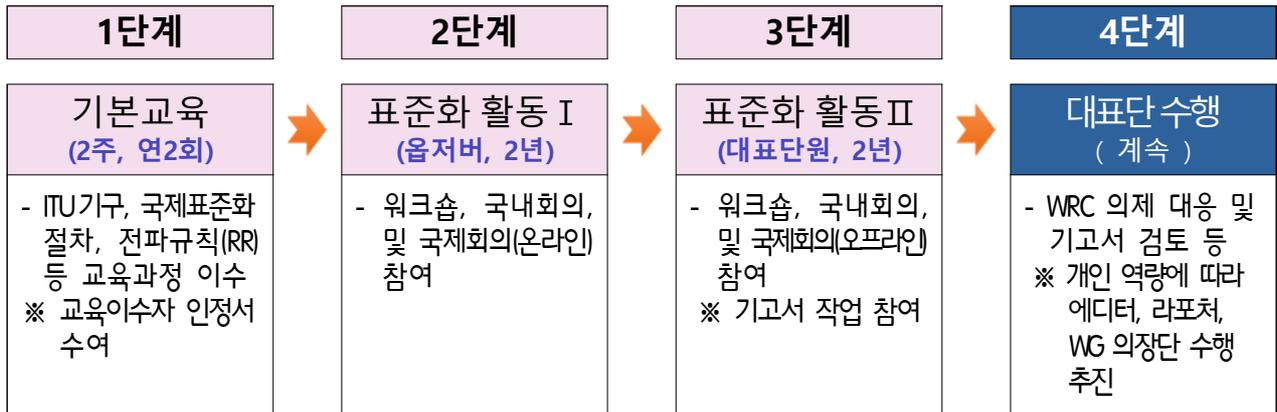
이번에 시작하는 글로벌 CREW는 기본교육을 포함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표준화 활동 참여 및 국제 전문가들과의 교류, 협력 하도록 하고 국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 국제 의장단에 도전하는 등 표준화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.

전파연 서성일 원장은 “전파분야 국제전문가 양성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양성프로그램과 경력관리를 통해 ITU 대응 전문가로 양성하는 첫 발걸음으로써 전파연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붙임 : 글로벌 CREW 양성 프로그램(안)

<부서>	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	책임자	과 장	최영선 (061-338-4400)
		담당자	사무관	조성돈 (061-338-4470)

글로벌 CREW를 대상으로 교육, 워크숍, 회의참석(온라인·오프라인) 등 단계적/장기적 교육을 통해 ITU 전문가로 양성 추진



영어 능력 향상
(기본교육과정에 국제회의 영어과정 실시 및 영어교육 파견 등 다양한 방법 강구)

- (1단계, 기본교육) 개론 중심의 사전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한 후 오프라인(집합교육) 과정을 통해 ITU 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정 이수
 - 연 2회 실시로 기본 역량의 내재화를 유도
 - ※ 참고 : 글로벌 CREW 기본교육 프로그램(안)
- (2단계, 표준화 활동 I) CREW별 관심분야 의제와 관련된 연구반 (ITU-R) 및 작업반(WP) 반원으로 국내 및 국제회의(온라인) 등 참여
- (3단계, 표준화 활동 II) 전문지식, 영어 등 일정 역량을 확보한 직원을 중심으로 실제 국제회의(오프라인)에 우리나라 대표단원으로 참여
 - ※ 2·3단계를 합쳐 적어도 ITU의 1회기(Study Cycle, 약 4년)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
- (4단계, 대표단 수행) 해당 연구반 WRC 의제(1.1~10) 대응 및 타국 기고서 검토 등 ITU 국내 대표단 역할 수행
 - 개인 역량에 따라 국내 연구반장, ITU 의장·부의장 등 민간 전문가와 경쟁하여 수행
- (공통, 영어 능력 강화) 인사혁신처 주관 영어 교육 실시
 - ※ 개인별 영어전담 교육과정 파견 등으로 기본 영어 소양 확보